



2024 가을호 Vol.100

우리는 서로 연결된
한 가족임을 잊지않고
큰 사랑 펼치겠습니다.

마음 사랑



마음 사랑

2024 가을호
VOL.100

CONTENTS

우리는 서로 연결된
한 가족임을 잊지않고
큰 사랑 펼치겠습니다.

04 포토에세이

06 여는글_김성의 이사장



전북특별자치도 마음사랑병원 소식지 <마음사랑>
2024 가을호 VOL.100

발행처 전북특별자치도 마음사랑병원
55347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465-23

발행인 이근학

발행일 2024년 09월

전화 063)240-2100

팩스 063)240-2117

기획·편집 전북특별자치도 마음사랑병원 기획팀(홍보위원회)

디자인 제작 휴디자인 063)285-4092

기획

축사

08 이병관 설립자

건강

건강길라잡이

10 장 건강과 정신건강의 상관관계

메디컬 칼럼

12 가족교육의 중요성과 정신질환자 가족의 역할

스토리

이슈

14 공감과 소통으로 하나 된 우리

마음나누기

16 마음사랑병원에서 펼쳐지는 봉사활동

18 오늘도 더 친절하게, 사랑합니다

20 마음사랑병원 낮병원 치료후기

열정 36.5

22 일과 삶의 균형, 사내동호회 활동 소개

여행

마음따라 힐링산책

24 고창 문수사 단풍나무숲



뉴스 & 안내

26 병원&재단소식

30 친절직원

31 가족 뉴스

32 셔틀버스 안내

34 마음사랑후원회

35 공공보건의료 3년 연속 최우수기관

마음사랑 소식지는
매년 봄과 가을에 발행됩니다.
병원의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본원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블로그

우리가 함께 걸어갈 새로운 길

지나온 시간이 이룬 길 위에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차곡차곡
온 마음을 다해 정성스레 길을 냈습니다.
햇살이 반짝일 때도,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누구 하나 멈추지 않고 묵묵히 다져온 길입니다.
꽃잎 날리는 봄을 지나 초록으로 물든 여름을 거쳐
낙엽 지는 가을에서 흰 눈 쌓이는 겨울까지.
계절이 바뀌어도 우리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같이 빛나는 가치를 만들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둘 모여서
어느새 100이라는 숫자에 이르렀습니다.
허나 완전함에 다다랐다는 생각으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변화를 향해, 다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도 야신처럼



야구감독 김성근은 별명이 <야신>입니다. 야구의 신. 한국의 일곱 개 프로야구팀 감독으로 세 차례 한국시리즈 우승을 하였답니다. 제일교포 출신으로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정형편이 너무나 어려워 새벽 4시부터 각종 일을 하여 학비를 벌며 학교에 다녔다지요. 1960년 당시엔 한국과 일본사이 수교가 없었기에 가족을 영영 못 볼 거라는 각오로 한국행 배를 타고 오는 내내 눈물을 흘렸는데, 부산에서 내릴 땐 스스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키만 컸지 달리기 등 기본기가 약했던 여러 악조건을 뚫는 노력으로 버티며 선수생활을 했고 82세인 요즘에도 현역 감독으로 야구장을 지키는 분입니다. 당신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왔기에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굳게 지니고 사시는 분. 암수술 세 번과 허리수술 세 번을 하면서도 늘 경기장에서 선수를 훈련시키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분. 간 절제수술을 마춰도 없이 받다가 심장도 잠시 멈췄지만, 수술 다음날 바로 구장에 나왔더니 처음엔 일어설 수도 없었고 삼일 동안 버티니 그때서야 설 수 있었다고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분. **'한계 앞에서 누군가는 주저앉고 누군가는 길을 찾는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분. 그 분 인생에선 안 되는 것도 될 때까지 고민하고 궁리하면 방법이 있더라고, 그저 될 때까지 하면 언젠가 된다고 말씀하신다.

늘 연습장에 나와 투수면 투수답게 타자는 타자로서 최고가 되도록 직접 연습시키기에 선수를 너무 혹사시킨다는 비난도 따랐지만, 선수들이 귀가한 후에도 그 자리에 남아 공부하고 연구하여 자신이 맡은 제자들이 프로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분. 소속 팀원들의 미래가 초라하지 않도록 긴 안목으로 제자육성에 열성이신 분의 인터뷰를 보며 이제라도 이 분의 진심을 알아 준 세상이 참 고맙다고 생각되었지요. 무엇보다 적당히 나태하고 적당히 핑계 찾아 포기하며 살아 온 제 마음이 큰 망치로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며 이런 어른이 우리 곁에, 우리나라에 계신다는 사실이 무척 감사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분. 삶이 바로 큰 가르침이신 분이셨습니다.



이번 여름은 여러 기록을 세웠습니다. 폭폭 찌는 기록적인 날씨 속에 기습적인 폭우가 반복되니 밤에도 에어컨을 늘 켜고 자야만 했지요. 8월 15일까지 덥고 이후엔 수그러들 거라고 하던 예보가 바뀌어 8월말까진 계속 더울 거라고 하니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참자' 다독이며 버티던 마음이 털썩 내려앉는 것 같더군요. 우리가 참아 내야 하는 것이 어디 날씨 뿐이던가요. 건강걱정 자식걱정 돈 걱정 등으로 힘들지 않은 분이 없을 터인데 날씨까지... '너무 합니다.'라는 노래라도 부르며 힘든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싶습니다. 김성근 감독처럼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고 궁리하여 우리의 삶에서도 걱정거리 조금씩 사그라지길 두 손 꼭 모으며 아무쪼록 가을엔 더 편안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마음사랑병원 김성의 이사장



마음사랑 소식지 100호 특집 대담



이병원 설립자

- 의학박사(양·한방)
-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現 전주 대자인병원장
- 現 인산복지재단 이사장

전북도민을 위한 정신의료시설이 빈약했던 당시, 이병원 설립자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산의료재단을 설립하였으며, 1994년 병원부지와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자재를 비롯한 비품 일체를 기부하여 도립소양정신병원을 위탁받아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5,529㎡(1,675평)의 토지 기부채납을 시작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건물 및 토지를 기부하여 현재의 마음사랑병원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정신의료에서만큼은 전국에서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전주시에 부지를 기부하여 정신재활센터인 <아름다운세상>을 개설하였고, 환자들의 사회복귀에 앞장서는 등 정신의료기관의 새로운 틀을 만들었습니다.

소식지 마음사랑 100호 발간을 맞이하여 창간호 축사를 해주셨던 이병원 인산의료재단 마음사랑병원 설립자를 모셨습니다.

어떠한 의미를 담아 소식지를 창간하셨나요?

<소양신경정신병원>이라는 이름으로 1994년 개원한지 4년째인 1998년 소식지를 창간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정신과 환자분들은 질병의 특성상 오랫동안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을 바꾸기 위해 회복에 대한 희망과 그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세상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히 환자분들이 참여하는 소식지를 만들고 그들이 가진 재능으로 만들어진 작품들도 담고 싶었지요.

1998년 창간호에는 이미 '마음사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치료에 대한 마음과 깊은 뜻이 담겨 있었던 것일까요?

1994년 병원을 설립할 때부터 정신과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개선하고자 병원명칭에 '정신'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허가기관의 승인이 어려워 병원 소식지에나마 '마음사랑'이라는 명칭을 먼저 사용하게 되었지요. 요즘에는 '마음사랑'이라는 단어가 흔히 사용되지만 당시에는 마음을 사랑하자는 말이 생소하게 생각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마음사랑'은 정신병원의 폐쇄적인 환경과 편견을 극복하며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으며 사랑실천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병원의 치료방향을 담은 말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차가운 창살을 없앴고, 병동 내 폭포, 벽천, 실내정원 등을 만들었으며, 실외산책 등을 통해 진정한 회복을 위한 치료환경을 조성해 나갔습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개방과 안전'은 서로 모순되는 단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세심하게 노력하여 획기적인 치료환경 개선을 통해 큰 성장을 이루었지요. 또한 따뜻한 치료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말로 진심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간호 축사에서 마음사랑병원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셨는데요.

"이제 병원은 단순히 입원과 치료라는 역할만이 아니라 환자의 사회복귀와 생활의 질적 향상, 그리고 지역사회정신건강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역할과 의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환자의 병은 자신만의 아픔이 아니라 가족 더 나아가 우리 사회 모두의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병원은 환자 중심의 병원이면서 또한 환자 가족과 지역사회의 병원이어야 할 것입니다." - 창간호 축사에서

2024년 현재 마음사랑병원은,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하고 입원 치료 후 사회복귀시설 아름다운세상을 거쳐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드림브릿지>를 구축하여 환자들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간호의 인사말이 실현되도록 함께 노력해온 모든 직원들에게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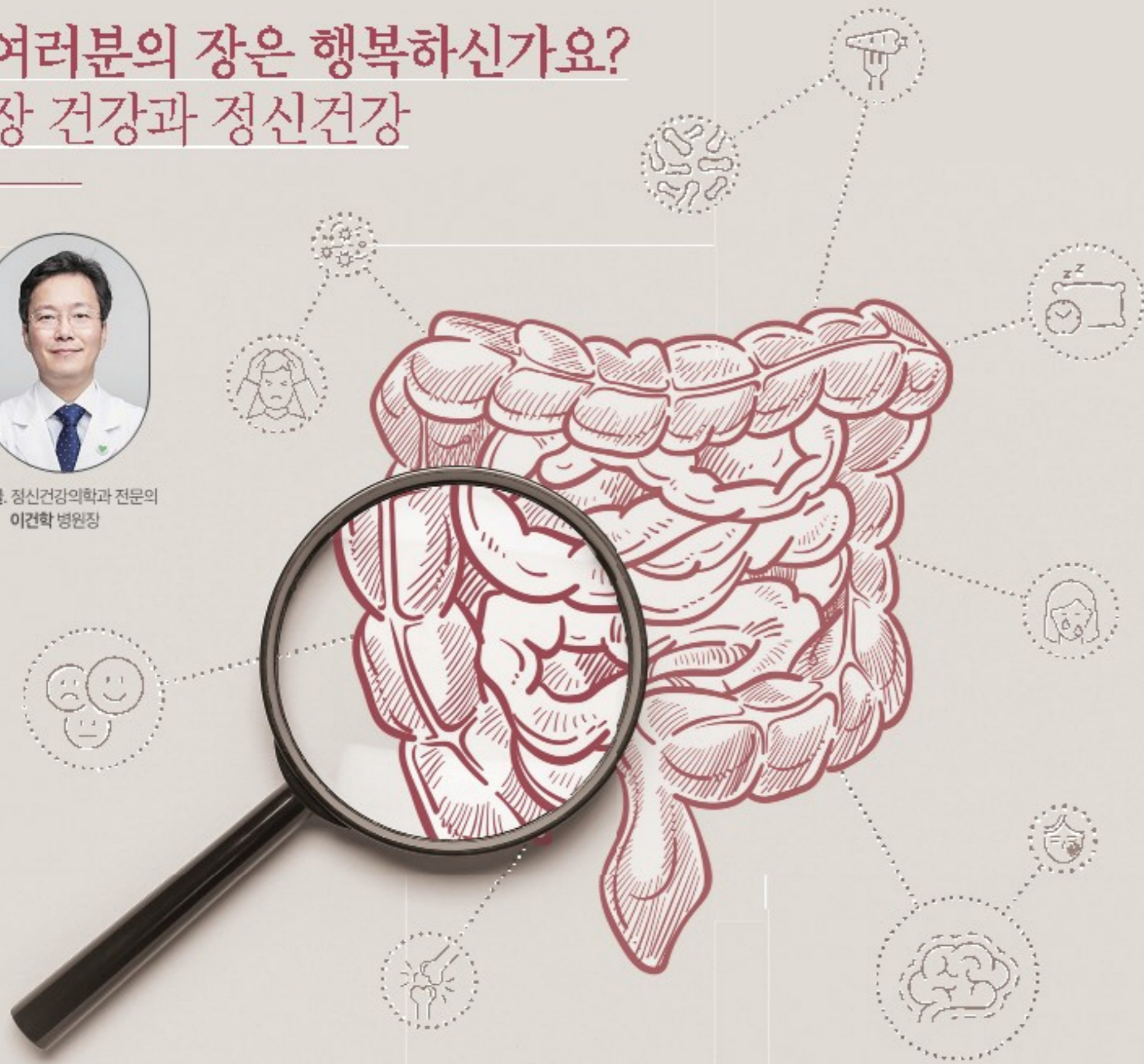
소식지 100호를 맞이하여 축하말씀 부탁드립니다.

100이라는 것은 '완성, 온전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마음사랑 소식지 100호 발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100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번 소식지 100호가 마음사랑병원의 새로운 시작, 출발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항상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장은 행복하십니까? 장 건강과 정신건강



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건학 병원장



장 질환은 간병의 근원이라고 여겨진다. 장 건강이 좋지 않아 오랫동안 고성증인 필자는 그 말에 상당히 동의한다. 큰 병까지 연관 짓지 않더라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식을 하면 칼이 자주 나기어 늘 조심스럽고 멀리 여행 갈 때에는 설레보다 걱정이 앞선다. 또한 수시로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활력이나 자신감이 떨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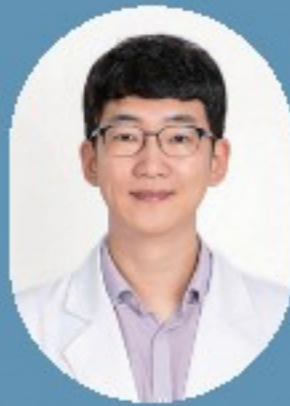
장이라는 기관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고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기관 중 하나이며 면역체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장 자체의 질환 뿐 아니라 아토피 같은 피부질환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전신질환들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지면 장 질환이 악화되고 역으로 염증성 장 질환으로 인해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장과 밀리 떨어져 있는 뇌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를 토대로 장 건강이 뇌기능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음이 알려졌으며, 장의 신경계는 두 번째 뇌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장 내부에는 수조 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생물들이 장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건강(뇌)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장내 미생물들이 신체의 가장 윗부분에 있는 뇌까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신경계, 내분비호르몬계, 면역계 등을 통해 어떤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뇌-장 축 또는 뇌-장-장내미생물 축(brain-gut-microbiota axis)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한 방향이기보다 서로 메시지를 보내며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예를 들어 장과 그 미생물군은 뇌의 정서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뇌는 장에 사는 미생물의 유형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감정, 식욕, 수면 등에 관여되어 있고 행복호르몬이라고도 부르는 세로토닌의 대부분은 주로 장에서 만들어지며 장내 미생물들이 그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장내 미생물군들의 불균형이 생길 때 이러한 신경전달물질들과 호르몬 등의 균형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우울이나 불안 등의 다양한 정신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고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게 첫 번째이다. 잘 자고 충분한 수분섭취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마음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고, 명상 등을 통한 이완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유산균으로 대표되는 장내 유익균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우울증의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으며, 향후에는 장내미생물들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일반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난치성 우울증이나 정신병 등에 대한 새로운 치료적 대안을 기대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가족의 고통과 가족교육의 중요성



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용 진료과장

“애가 아프고 나서는 저도 하던 일을 그만두고 병원만 따라다녔어요. 본인도 많이 힘들겠지만, 정말 가족은 죽지 못해 살아갈 때가 많아요. 좋아졌나 싶으면 또 재발해서 난리가 나고...” 정신과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들은 하나같이 이런 고통을 호소한다. 어떤 질병이든 가족들이 짊어져야 하는 짐이 있기 마련이지만 정신과 질환은 특히나 그 짐의 무게가 무겁고 또 오랫동안 지속된다. 조현병 환자의 경우엔 재발할 때마다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들은 항상 그 조짐에 예민해져 있다. 환자의 가족에게 감정의 과도한 표출(Expressed Emotion)을 자제하도록 교육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감정 표출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한 보호자의 사례이다. 아무 표정 없는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서는 환자와 달리 뒤따라오는 그녀의 어머니 에겐 근심이 한가득해 보인다. “애가 또 약을 안 먹어요” 면담을 시작하기도 전에 보호자가 한 마디 던진다. 환자가 옆에 앉은 보호자를 노려본다. “저 약 먹었어요!” 환자는 억울하다는 듯이 내게 호소했다. “어제도 저녁 약 안 먹었잖아!” “어제는 속이 안 좋아서 밥 안 먹었으니까 그랬지!” 환자와 보호자가 대치하는 면담상황. 정신과에서는 너무도 익숙한 장면이다. “어머니, 일단 조금 진정하시고요, OO씨, 그러니까 약을 안 먹을 생각은 없으셨던 거죠?” “네, 저 안 빼먹고 잘 먹었어요” 환자의 말에 보호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이다. “야, 너 그거도 말해야지” 보호자는 멈추지 않는다. “뭐?” 다시 보호자를 노려보는 환자는 무시한 채, 어머니는 주치의에게 이르듯 말을 이어나간다. “너 선생님하고 이번달에는 운동도 하기로 해놓고 한 번도 안했잖아. 그리고 밤에 12시 안에 잔다는 약속도 안 지키고 맨날 새벽에 자고, 정말 너 같이 게으른 애가 어딴니?” “잠시만요, 그만하시고. 일단 오늘은 약물농도 검사 좀 해볼게요, OO씨 말 못 믿는게 아니라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은 조금씩만 시작해 보구요. 집 근처 걷기부터. 그리고 어머니는 OO씨한테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기로 약속하신 거 잊지 않으셨죠?” “.....” 환자가 혹여 재발

할까봐 항상 마음졸이는 것.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 가족의 괴로운 마음은 백번 천번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지나친 감정의 표출이 환자의 마음을 더 깊어먹을 수 있기에 치료자는 또 가족을 다그칠 수 밖에 없다.

정신과에서 환자로 인한 가족의 고통은 중독 분야에서 최고조에 이른다. “저희 남편이 왜 이렇게 가족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입원해 있던 6개월이 그 동안 저희 가족이 살면서 가장 행복한 기간이었어요” 남편의 퇴원일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알콜 환자 보호자의 하소연. “선생님 동생이 정말 도박을 끊을 수 있을까요? 이 녀석은 정말 중독이 심해서 손가락이 없어지면 발가락으로라도 도박을 할 거예요” 동생의 도박 빚을 여러 번 갚아준 형의 호소.

얼마 전 병원에 보호자들이 도박중독인 아들을 맡기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던 일이 떠오른다. 환자가 입원치료만 받으면 무조건 도박을 끊을 것이라는 순수한 기대감. 안타깝게도 주치의로서는 먼저 그 기대감부터 꺾어야만 했다. 진료실을 들어온 환자는 굳은 표정을 하고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뒤따라 들어온 부모님들의 표정도 밝지 않다. 아마도 이미 입원 결정을 한 것 같았다. “어떤 도박을 했죠? 빚은 어느정도 있습니까?” “바카라요, 빚은 10억.. 정도돼요” 나이에 비해 빚이 생각보다 많아 치료자는 짐짓 놀랐지만 오히려 환자는 아무렇지 않아보였다. “지금 우울하지는 않아요?” “뭐 우울하기는 한데.. 이제는 안 할 거니까요” 우울하다는 말과 달리 그의 어투에는 아직 자신감이 남아있었고, 치료자는 그의 모습에서 앞으로 넘어야할 수 많은 고비들이 비취보였다. “이제는 정말 안 하기로 약속했으니까요. 이녀석이 앞으로 정신차리고 살 수 있게 주치의 선생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표정과 어투에서도 낙관과 희망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졌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주치의 혼자인 것 같았다. 환자가 입원한 이후 몇 차례 보호자와 면담을 할 때마다 주치의는 그들의 희망을 꺾어놓곤 했다. “선생님, 이 녀석이 이제는 정말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퇴원해서 바로 일을 하고 싶다는데 이번주에 퇴원을 해도 될까요?” 아버님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기쁨이 섞여 있었다. “아니요 아버님, 이럴 때 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OO님이 빨리 퇴원하려고 아버님께 그렇게 말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면담해 보았을 때는 아직 멀었습니다” 희망을 꺾는 것은 주치의에게도 괴로운 작업이다. 그래도 환자의 재발로 인한 절망보다는 훨씬 덜 쓴맛일 것을 알기에 주치의는 냉정해질 수 밖에 없다.

알콜이든, 마약이든, 도박이든 중독의 공통점은 가족들의 삶까지 황폐화시킨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만큼 중독은 무섭다. 치료의 과정은 지난하다. 분명한 것은 절망감을 느끼기 전에 치료된 중독환자는 본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아무쪼록 환자와 가족들이 이런 절망감을 건디고 회복의 길로 인도되기를 오늘도 기도한다.

마음사랑병원은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향상 및 회복에 대한 동기 강화를 위해 가족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회사업팀 ☎063-240-2150

머리에는 금지, 가슴에는 열정, 얼굴에는 웃음

공감과 소통으로
하나 된 우리,

지역사회 정신건강
더욱 밝게 그려가요!



지난 5월, 마음사랑병원을 비롯한 인산의료재단 정신건강시설 직원을 위한 명랑운동회가 열렸으며, 160여명의 참석자들이 하나되어 응원하며 소중한 동료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기관: 7개 기관, 전북특별자치도마음사랑병원, 아름다운세상, 공동생활가정, 전주시/정읍시/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명랑운동회는 '비전탐색기, 협동제기차기, 큰 공굴리기, 바람잡는 특공대, 단체줄넘기 등' 팀워크 향상과 함께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정신건강종사자로서 자부심과 소속감, 긍정에너지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

'정신건강'이라는 하나 된 키워드로 연결된 우리는 화합/소통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더욱 밝게 만들어가겠다는 명확한 꿈을 함께 그려나가고 있다. 특별한 만남이 이뤄졌던, 함께여서 더욱 뜻 깊었던 시간을 사진으로 생생히 전한다.



'정정당당한 경쟁과 협력'으로
소중한 동료와 더욱 가까이!



머리에는 금지,
가슴에는 열정,
얼굴에는 웃음

모두가 하나 되어 응원하며
긍정에너지가 넘쳐나는 마음사랑병원!
그 열정을 지역사회와 고객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내가 끝까지,
우리가 먼저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신뢰감을 더 높이!



나눔과 실천은 현재진행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글: 공공사업팀 양세름 주임



다양한 분야에서 일구어낸 실력과 전문성,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따스한 마음까지 이들의 삶에는 사랑이 녹아있다. 마음사랑병원에서 펼쳐지는 봉사활동이 삶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는데 그들의 열정과 능력은 누군가를 위한 도움의 손길로, 희망과 동력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는 더해진다. 꾸준함으로 이어오며 자신만의 전문영역 기량을 넘어서 마음까지 빛나는 봉사단을 만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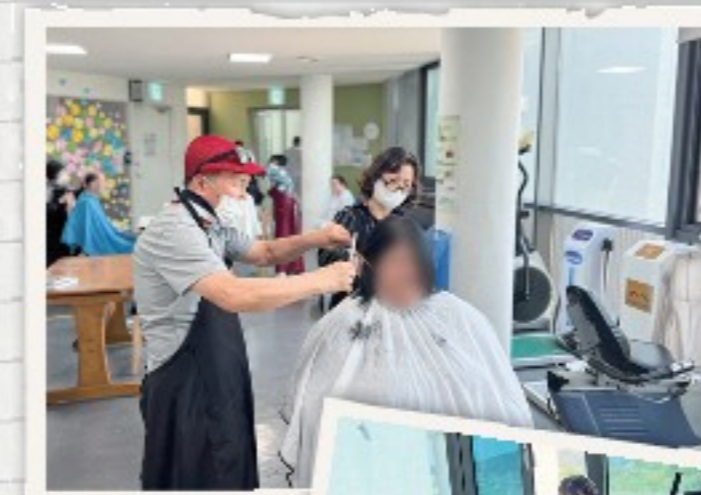
정신건강자원봉사단

마음반창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대학생 또는 정신건강에 관심있는 일반 성인으로 구성된 봉사단입니다.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영상제작, 블로그 활동 등 온 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활동하는 봉사단입니다.

활동수기: 마음반창고 봉사자 김주영

마음반창고를 통해 봉사자로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캠페인과 의료봉사는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에 관한 편견에 대해 직접 알아보고 인식개선을 도울 수 있었기에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 전문봉사단이라는 흔치 않은 경험을 하는 만큼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용 봉사단

헤어나눔공작소

2003년 10월부터 30명으로 구성된 헤어나눔공작소 봉사단은 자발적인 위생관리가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현직 전문 미용사가 병원에 방문하여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환자들의 욕구에 맞춰 멋진 헤어스타일이 탄생합니다. 현재 105명의 자원봉사단으로 구성되어 매주 정기적으로 본원을 방문하며,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봉사활동입니다.

활동수기: 헤어나눔 공작소 봉사자 송준섭

6년동안 마음사랑병원에서 이미용봉사를 꾸준히 나오는데 집중했습니다. 늘 열심히 하려 한 것밖에 없으며 앞으로도 열심히 하려합니다. 제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는 마음사랑병원에서 이미용봉사활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서철승 신부 / 정윤형·박인순·정해명 목사

종교봉사단

회년교회, 소양성당

마음사랑 종교 봉사단은 신부님과 목사님이 직접 방문하여 기독교 예배, 천주교 미사를 통해 바깥에서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을 돕는 봉사단입니다.

활동수기: 회년교회 양선자

매번 환자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서 의미가 깊어요. 마음사랑병원에서 토요일마다 예배를 통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큰 은혜로 다가와요. 앞으로도 좋은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식당봉사·교육봉사·공연봉사

새마을 부녀회 식당 자원봉사단, 교육 자원봉사단, 공연 봉사자 등 많은 분야에서 자신만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활동수기: 새마을부녀회 김정희

식당봉사가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요. 봉사활동이 끝나고 직원선생님들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들을때마다 보람차고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봉사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 친절하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와 함께 밝은 미소와 따뜻함이 넘치는 마음사랑병원! 지난 5월, 외부 *CS전문강사를 모시고 매일 환자와 가족들을 응대하는 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매니저 양성과정'을 진행하였다. 고객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다가가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 CS: 고객만족서비스(Customer Satisfaction)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객중심으로 극대화하여, 병원이용 고객들의 만족도 향상 및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사소통능력 강화활동



“
간호부 유슬기 책임간호사
서비스 매니저 양성과정 교육 후기
...

Customer Service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라.
Customer Satisfaction 고객을 만족시켜라.
Customer Surprise 고객을 놀라게 하라.
우리의 운명은 고객이 결정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고객이라면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과 함께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단계 성장하는 좋은 교육이었습니다.

“
원무팀 김연아 주임
서비스 매니저 양성과정 교육 후기
...

'공감 언어 레시피' 가 기억이 납니다.
(고객마음) → (내 마음) → (대안제시) 의 순서입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도 느껴보게 되었고, 저 또한 내 마음을 인지하면서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실제로 진행된 교육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거웠습니다. 더욱 친절할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간호부 안형숙
서비스 매니저 양성과정 교육 후기
...

고객의 상황에 맞게 '사리대화(정보 및 지식전달)와 심정대화(감정전달)'를 활용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역할놀이를 통해 고객의 입장이 되어보기도 했는데요. 고객의 마음을 알아봐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친절한 마음사랑병원 내가 먼저 만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
사회사업팀 이지원 사회복지사
서비스 매니저 양성과정 교육 후기
...

고객 응대 중 '화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뢰형> 잠시만 기다려주세요습니까?
<공정형> 저희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123화법> 맞아요~이 부분은.(복창, 공감) 많이 놀라셨겠어요?
<공감언어> 죄송합니다만, 실례합니다만, 번거롭겠지만 등 고객 응대의 기본화법을 배워봤는데요. 단순히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공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비스 매니저를 비롯한 마음사랑병원 전 임·직원은
병원에 방문해주시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정성과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재활치료, 밤에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마음사랑병원 낮병원은 입원과 외래치료의 장점을 살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부분입원 형태로 운영되며,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낮병원에서의 규칙적인 활동으로 몸과 마음의 활기를 되찾고 가족 및 동료와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배우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놀면서 배우고 힐링하도록 돕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마음사랑병원
낮병원 홈페이지

낮병원 문의 ☎ 063-240-2288~9



마음사랑병원 낮병원 이용

- 🕒 오전 10:00시 ~ 오후 4:00시
- 🗓 월~금 운영, 공휴일 제외
- 🚌 전주/완주지역 셔틀버스 운행

우리함께 낮병원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 놀고 + 🎭 배우고 + 🧘 힐링하고
 치료공동체 + 감정관점 + 웰니스와 웰빙

즐거움이 가득한 낮병원에서는?

- 심리상담치료
- 대인관계 향상
- 회복기술훈련
- 계절따라 여행
- 친구와 함께 취미활동
- 증상 및 약물에 대한 강의



이00님 🗣

"일상적인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되었고, 내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낮병원은 회복된 삶과 외부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라고 생각해요. 집에 와서는 손 씻기, 방 청소, 가방 정리 등... 전에는 그렇게 힘들어하던 일상적인 것들을 이제는 잘 하게 되었고, 뉴스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자연 속에서 함께하는 단체 생활도 너무 좋고,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도 자주 열려서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조00님 🗣

"낮병원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낮병원을 다니며 생활 패턴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아침이 새롭게 다가오고,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신건강교육과 회복기술훈련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머릿속을 채우던 안 좋은 생각이 지워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삶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최00님 🗣

"낮병원은 나를 위해 준비된 장소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병을 인정하기 어려워 약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마음사랑 낮병원을 알게 되었는데요. 낮병원 활동을 통해 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꾸준히 약을 복용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꾸준한 관심과 돌봄을 받으며 회복에 집중할 수 있었고, 낮병원을 지속적으로 다니며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낮병원은 회복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곳이며, 나를 위해 준비된 소중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00님 🗣

"다양한 사람들과 여행도 다니며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외로움과 고통으로 살아오던 중, 낮병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여행도 다니며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고, 주치의의 따뜻한 상담으로 삶의 의미와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낮병원을 통해 웃음을 되찾고, 과거의 트라우마와 우울증을 극복하며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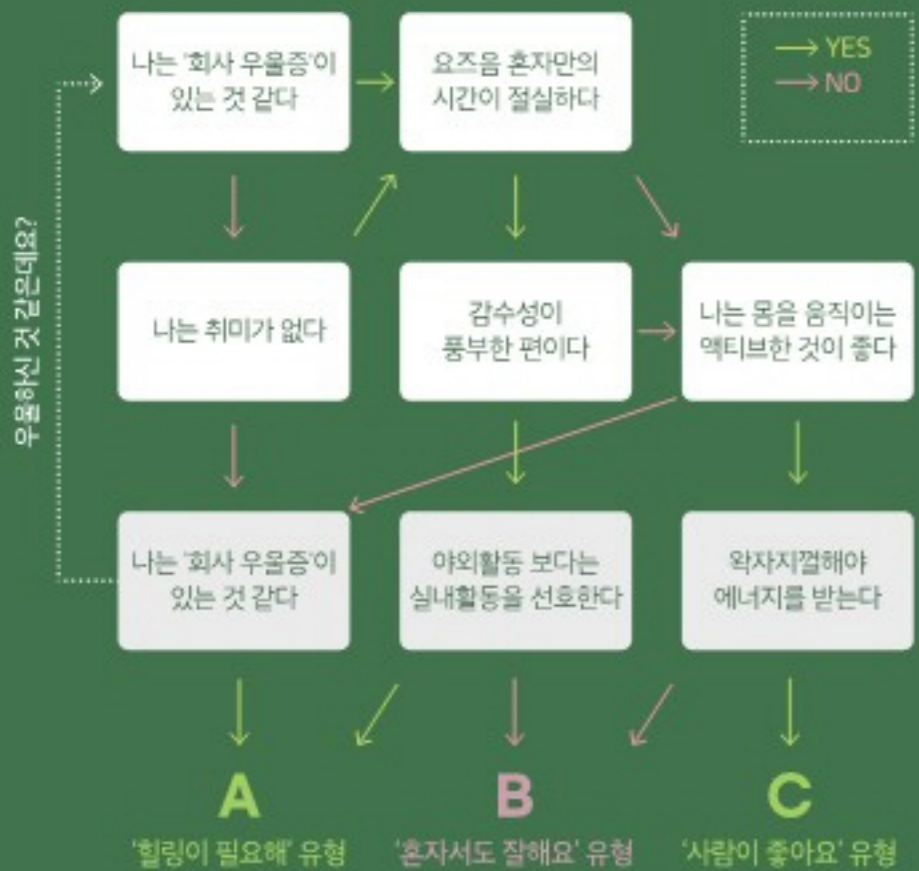
직장생활 속 새로운 활력과 재미, 우리들은 이렇게 뭉쳐요!

글. 기획팀 용태영 팀장

일상생활 속, 쉽게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 한 가지 정도는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취미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감이 더욱 높고 건강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마음사랑병원에서는 다양한 직원들이 같은 취미로 소통하며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취미를 가져보면 좋을까?'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 자가 진단에 따른 유형별 동호회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마음사랑병원 직원 동호회도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나에게 어울리는 동호회 찾기 START!



A '힐링이 필요해' 유형

- ☑ 야외에서 자연과 함께 즐길 줄 아는 사람
- ☑ 실내에 있는 것을 지루해 하지 않는 사람
- ☑ 소소한 활동으로 만족을 느끼며 행복을 알아갈 수 있는 사람

사람들과 어울리며 활동적인 야외활동으로 에너지를 충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실내에서 여유를 즐기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힐링이 필요해'형인 당신에게 추천하는 동호회는 트레킹, 심리스터디 동호회입니다.



트레킹 동호회 **올레**

올레는 '서로를 연결하는 좁은 골목길, 아주 좋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책길을 탐방하며, 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고 직장생활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가며,
타인의 마음도 헤아려보는 시간 **프레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기는 어려울뿐더러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건 더욱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프레임'은 함께 영상을 시청하며 사람의 다양한 심리를 주제로 토론하는 동호회입니다. 나를 다스린 심리적 안정감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알아가며, 세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B '혼자서도 잘해요' 유형

- ☑ 같이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이 편한 사람
- ☑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고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 ☑ 여성적인 섬세한 마인드가 내포되어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감성을 채워 넣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죠. '혼자서도 잘해요' 유형인 당신에게는? 바로, 프랑스 자수 동호회!



지친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잔잔히 수놓는 프랑스 자수 **봉주르 공방**

프랑스 자수 기법을 익혀 '허브꽃, 야생화 자수 티코스터, 에코백 자수' 등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 주위 사람들과 공유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데, 힐링은 덤! 특히 배움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만족감과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요.

마음사랑병원 사내 동호회는 2005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현재 5개의 동호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환자분들을 위해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과 같은 취미로 모인 공통점으로 더욱 즐겁게 소통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함께 뭉친 긍정의 에너지로 고객을 맞이하겠습니다.

C '사람이 좋아요' 유형

- ☑ 혼자 즐기는 것보다 다같이 즐기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
- ☑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승리에 기뻐할 줄도 패배에 인정할 줄도 아는 사람
- ☑ 조용한 것 보다는 시끄러움 속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

여럿이 함께 해야 즐겁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사람이 좋아요' 유형은 함께 참여하는 축구, 야구, 배드민턴, 볼링과 같은 동호회가 잘 어울립니다. 다른 사람과의 협동심과 타협심을 요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에 도움을 줍니다.



체력증진부터 배드민턴 레슨까지! **서틀콕**

각자 포지션에서 서틀콕에 집중해야 하므로 순발력과 지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팀 동료들과 소통하고 의논하며 단체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단결력,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매달 병원 문화센터 및 연습장에서 배드민턴 활동을 통해 직장생활에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볼링을 좋아하고 즐길 수만 있다면 **퍼펙트**

인간은 나면서부터 밀고, 당기고, 치고, 받고, 던지고, 차고, 때리는 등 근원적 경향성을 지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향성을 해결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볼링은 신체 활동을 통해 볼을 던져 10개의 핀을 쓰러뜨리기 때문에 근원적 경향성 해결은 물론 스트라이크를 만들었을 때 느껴지는 기쁨은 전신에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가을별에 무르익은 붉은 숲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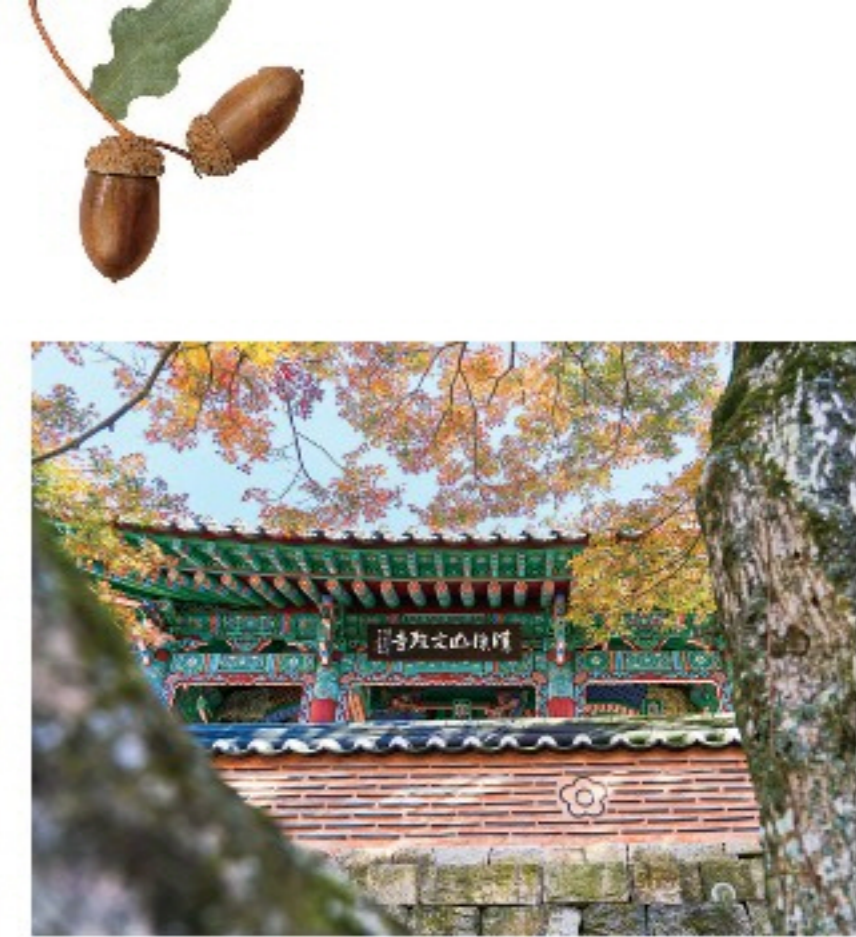
고창 문수사 단풍나무숲

● 찢는듯한 퇴락별이 물러간 자리, 포근한 가을별이 들어찬다. 유난히 번덕스러운 날씨에 지친 여름날을 보낸 까닭일까. 적당히 따스하고, 기분 좋게 선선한 이 계절이 그 어느 때보다 반갑다. 반갑고 고마운 마음을 가득 안고 어디로든 떠나고 싶다. 적당한 습기와 온기 품은 바람을 맞으며 슬렁슬렁 걷기 좋은 날 길을 나섰다. 푸르렀던 잎들이 가을별에 잘 익은 고창 문수사 단풍나무 숲으로



잘 익은 잎들이 반갑게 손짓하니 여름내 청량한 푸르름이 가득했던 숲에 알록달록 고운 빛갈이 내려앉았다. 청명한 파란 하늘과 대비되는 가을날의 전령, 빨강고 노란 단풍잎에 금세 마음을 빼앗기고 만다. 떠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에 입가에 슬며시 미소가 번진다. 가을날 정취를 만끽하기 좋은 곳, 500여 그루 단풍나무가 숲을 붉게 물들이는 문수사 단풍나무 숲이다. 단풍 산책을 시작하는 일주문 옆으로 비스듬히 누운 커다란 단풍나무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단풍잎은 흡사 잘 왔다고 손짓하는 듯하다. 아기 손바닥

처럼 작은 이파리가 사랑거리는 모습을 두 눈과 마음 가득 담고 기분 좋은 산책길에 오른다. 문수사 단풍나무 숲은 고창 단풍 명소로 널리 알려진 선운사 못지않은 풍경을 자랑한다. 수령 100~400년가량의 500여 그루 단풍나무가 숲을 이룬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이처럼 오래된 나무들이 숲을 이룬 경우가 흔치 않은 데다 국내 최초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하니 귀한 풍경을 더욱더 놓쳐서는 안 될 일이다. 길을 옮기며 문수사로 들어가는 길은 호젓하고도 운치가 넘친다. 수백 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고목들이 뻗뻗하게 우거진 숲이 만든 단풍 터널은 해탈하며 느리게 걸어야 제맛이다.



고색창연한 사찰을 느리게 거닐며 파란 하늘을 뒤덮은 단풍에 눈과 마음을 뺏긴 채 얼마나 걸었을까. 그리 길지 않은 것 같

으면서도 꽤 오래 걸은 것만 같은 꿈결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문수사 입구에 도착한다.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 보아도 온통 붉다. 울긋불긋 단풍에 하늘마저 보이지 않을 정도다. 한참을 감상에 젖어 단풍을 보다 꿈에서 깬 것마냥 정신을 차리고 문수사를 둘러본다.

자연과 어우러진 모습이 운치 있는 문수사는 곳곳에 세월의 흔적을 품은 오래된 사찰이다. 해발 621m 문수산 중턱에 아늑하게 파묻혀 있는 까닭에 산사다운 고즈넉함이 오롯이 느껴진다. 신라 자장율사가 백제 의자왕 3년(643년)에 지었다고 한다. 당나라에서 귀국하는 길에 석굴에서 7일간 정성을 다해 기도드리던 자장율사가 땅속에서 문수보살이 나오는 꿈을 꾸고 그곳을 파보니 커다란 문수보살 입상이 나왔다고 한다. 이후 절을 세우고 문수사라 이름 붙였다.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대웅전과 문수전 등의 지방유형문화재를 비롯해 만세루, 명부전, 한산전, 누각, 산신각, 요사, 산문 등을 알차게 품고 있다. 고종 13년(1876년)에 다시 지은 대웅전은 어느 사찰처럼 웅장하진 않지만, 그래서 더 마음이 간다. 아마도 본디 선명했을 텐데 이제는 빛바랜 단청에서 갖은 풍파를 겪어왔을 150여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져서인 듯하다. 산책하기 참 좋은 가을날, 황홀한 단풍나무 숲을 지나 만난 오래된 사찰이 안겨준 여운은 오래도록 남아 있으리라

병원소식



제 26회 마음사랑정신건강세미나 개최

지난 6월 28일, 본원에서는 '정신건강정책 혁신과 중증정신질환관리'를 주제로 <제26회 마음사랑 정신건강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는 병원 및 보건소, 정신재활시설 및 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등 관내 정신건강 유관기관 종사자와 정신건강수련생 등 150여명이 참여하였다. 김성의 이사장은 "정신응급상황 대응과 사법입원제도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과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었길 바란다. 또한, 정신건강 종사자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처럼, 전북특별자치도마음사랑병원은 매년 정신건강 현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역량강화와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중독치료센터 전인화교육 40기 수료식

지난 8월 6일, 마음사랑병원 중독치료센터에서는 전인화교육 40기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전인화 교육은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음주와 관련된 잘못된 습관과 생각, 행동 등을 변화시켜 스스로 소중한 사람을 깨닫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중독치료 프로그램이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12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1명의 수료자가 배출되었는데, 이날 수료생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중독치료센터 치료진의 보살핌 덕에 회복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도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잊지 않고 단주를 해내겠다는 다짐을 공유하였다. 본원은 2014년 6월부터 기독교국제금주학교와 함께 본원 중독전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알코올 전문 상담사가 협력하여 전인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24 상반기 인산인 및 모범직원 표창

지난 7월 9일, 마음사랑병원에서는 2024년 상반기를 결산하며 '인산인(仁山人)', '모범직원'에게 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을 본원 문화센터에서 진행했다. '인산인'은 병원발전에 공헌한 1인을 선발하여 상패와 함께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포상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간호부 안형숙으로 선정되었다. 이어서 타부서 직원에게 귀감이 되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한 직원에게 '모범직원'상을 수여하였다. 이날 수상자들에게는 직원들의 진심어린 축하박수와 격려가 이어져 훈훈함을 자아냈다. 이처럼 본원은 상·하반기와 분기별로 다양한 직원 포상제도를 마련하여, 사기진작과 더불어 자긍심 고취를 도모해 '직원이 행복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인산인** 간호부 - 안형숙
- 모범직원** 간호부 - 정준영, 황진자, 유승곤, 최성호, 이현미
약제팀 - 조상기



마음사랑병원, 전주시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지난 8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마음사랑병원은 전주시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본원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13명의 센터장과 병원의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협약은 지역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협력기관의 공동발전과 나아가 지역사회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형태 행정원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기관과 센터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지원하여 공동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형관 전주시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위원장은 "마음사랑병원과의 업무협약으로 노인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및 기저질환자 치료 연계체계를 기대한다"면서 "회복 지원 및 상호 협력을 통하여 좋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단소식



자인플러스병원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7(서노송동) ☎063-281-8888

5월 '가정의 달' 노송동 어르신 초청행사 성황리 열려

인산의료재단 자인플러스병원(병원장 남윤주)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자인플러스병원 1층 외래에서 노송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300여분을 모시고 어르신 초청행사를 진행하였다. 다도 전문가의 다식과 차 나눔 시간을 시작으로, 국악인들의 가야금연주, 판소리, 대금연주, 아쟁연주 등 국악한마당이 펼쳐졌다. 자인플러스병원은 척추·정형·재활·한방을 중심으로 전문재활센터 운영, 내과 내시경 및 소화기센터, 건강검진센터 운영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까지 전문적이면서도 폭넓은 진료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여러분의 가까운 곳에서 정성과 진심으로 건강과 행복을 더하겠다고 전했다.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뱃꽃로 55(별관 2층) ☎063-273-6995~6

[전주시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13곳과 업무협약 체결]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자살예방 서비스 활성화 기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8월 7일, 노인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전주시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1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주시 노인 우울·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자살예방 상담 및 정신건강 상담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앞으로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주시 취약계층 노인의 자살예방과 효과적인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읍시 수성택지 4길 11(정읍시보건소 후관) ☎063-535-2101

지역사회 86개 기관과 '생명존중 안심마을' 협약식 진행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읍시청에서 지역사회 기관이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식에는 지역사회 86개 기관의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 안내와 업무협약, 생명존중 안심마을 선서, 농약안전보관함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보건·의료, 교육, 복지, 공공서비스 등 6개 영역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살률 감소를 도모하는 국가정책 사업의 일환이다. 올해 7개 읍면동을 시작으로 정읍 전 지역 유관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선서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생명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였다.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완주군 삼례읍 삼봉8로 10-10, 완주군보건소 2층 ☎063-262-3066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마음건강 공개강좌 '마음 씬, 숨(명상) 테라피' 큰 호응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완주군민의 심리지원과 정신건강 문제 조기개입을 위해 마음건강 공개강좌 '마음 씬, 숨(명상) 테라피'를 7월 한 달간 온라인과 대면을 통해 성황리에 진행하였다. '마음 씬, 숨(명상) 테라피'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마음챙김 명상(MBSR)을 기반으로 1회기는 긴장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아로마 블렌딩과 향기명상으로 구성되며 2회기는 스킨십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터치 힐링과 자비명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정적인 명상에서 벗어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적극 도입하여 참여자 대부분 스트레스 관리와 부정적 감정을 다루어보는 자기 돌봄 시간을 가지게 되어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다. 앞으로도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해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주시 완산구 창송배기로 263 ☎063-223-4567

마음재활루틴 '숲에서 만난 회복'

찾아가는 재활프로그램 '마음재활루틴이' 프로그램이 전북특별자치도 마음사랑병원 후원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8회 운영되었다.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문화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된 '숲에서 만난 회복'은 나만의 나무 만들기 시작으로 덕진체련공원, 전주소리문화전당, 업순 공원, 모악산, 전주수목원 일원에서 전문 숲해설가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다양한 나무, 꽃, 열매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체험을 통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앞으로 9월, 10월에 진행 될 '숲에서 만난 회복'프로그램이 더 기대가 되며 더 많은 분과 함께 하고 싶다.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전주시민들의 중독문제 회복에 대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신재활시설 아름다운세상 📍전주시 덕진구 아중7길 9-5 ☎063-244-2816

새로워진 공간, 더 나은 서비스 - 기능보강사업

아름다운세상에서는 국비와 지방비 약 4천만원의 지원을 받아 시설 개보수 및 장비 보강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번 공사로 시설 내부 도배 및 장판, 입소회원 침대 교체, 3층 테라스 공간을 마련한 결과 더욱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하였다. 새롭게 단장한 아름다운세상에서는 회원 여러분의 만족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객의 소리함에 접수된

고객서비스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친절직원을 소개합니다.



총무팀 이순재

병동환경 뿐만 아니라 화장실이나 손이가기 어려운 곳까지 위생관리를 청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요청사항도 흔쾌히 들어주시는 다정한 모습과 환자들에게 진심을 다해 애정을 주고 환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는 따스함에 감동 받았습니니다. 밝은모습으로 병동을 늘 긍정인 분위기로 만들어주고, 활력이 불어넣어주는 여사님을 칭찬합니다.



사회복지사 이승주

병원에서 이런 멋진 공연을 볼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클래식 악기연주와 성악까지 관람하며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퇴원하고 나서도 이런 공연을 들을 수 있는 날이 또 있을까 싶네요. 치료를 받으며 문화활동까지 즐길 수 있도록 애써주신 사회사업팀과 담당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원무팀 김연아 주임

입원하는 동안 상냥하고 친절하게 안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병원비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저희 아이에게도 해당되는지 몰랐어요. 번거로운 법도 한데, 처음 접하는 사람도 알기쉽게 꼼꼼히 설명해주신 덕분에 원활한 접수는 물론 지금까지 혜택을 잘 받고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저희 가족의 입장에서 신경써 준 김연아 주임님을 칭찬합니다.



총무팀 이정민 주임

외진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주시는데다가, 외진결과도 꼼꼼히 확인하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건강치료 뿐만 아니라 다른 합병증이나 아픈 곳이 생겨도 안심하고 입원생활 할 수 있어요. 다른 업무도 처리하느라 바빠텐데 환자들의 건강을 최선으로 생각해주는 이정민 선생님과 총무팀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 마음사랑 가족교육

마음사랑병원은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유대감 형성을 돕기 위해 가족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문의 및 신청 사회사업팀 이승주 ☎ 063-240-2150



상반기

4월

4월 24일 수요일
오후 3:00

주제 가족을 처음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며 알아야 할 것들
강사 마음사랑병원 고요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과장

5월

5월 31일 금요일
오후 3:00

주제 치매의 종류와 임상 증상 및 치료
강사 마음사랑병원 황태영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부원장

하반기

10월

10월 29일 화요일
오전 10:00

주제 우울·불안,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강사 마음사랑병원 강남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과장

11월

11월 12일 화요일
오후 3:00

주제 중독질환의 이해와 가족의 역할
강사 마음사랑병원 곡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과장



해당 내용은 내부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셔틀버스 운행안내

마음사랑병원을 찾는 모든 방문객은 셔틀버스(낮병원 포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 모래내, 서신동, 송천동, 호성동까지 노선을 확장하여 운행합니다.
 탑승 위치 및 시간 확인 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셔틀버스 운행 시간표 (덕진구방면 모래내, 서신동, 송천동, 호성동)

노선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병원 출발	08:30	09:30	11:10	13:30	14:30	16:10
고려병원	생략	09:40	11:20	생략	14:40	16:20
안골(파리바게트)	생략	09:45	11:25	생략	14:45	16:25
모래내시장 버스승강장	08:55(농협)	09:50	11:30	13:55(농협)	14:50	16:30
안골(항연유외과)	09:00	생략	생략	14:00	생략	생략
수현방 병원(고려병원 건너편)	09:04			14:04		
소양(농협)	09:11			14:11		
병원	09:15			14:15		
대성학원 앞		09:55	11:35		14:55	16:35
전북일보빌딩 버스승강장		10:00	11:40		15:00	16:40
종합경기장 버스승강장		10:03	11:43		15:03	16:43
박천수 정형외과 앞		10:05	11:45		15:05	16:45
서신(편한세상 건너편) 버스승강장		10:10	11:50		15:10	16:50
하가지구 영무메디움 버스승강장		10:13	11:53		15:13	16:53
송천동 롯데마트 맥스		10:18	11:58		15:18	16:58
송천동 KFC		10:20	12:00		15:20	17:00
송천도서관(주공아파트앞)		10:25	12:05		15:25	17:05
호성 동신아파트 버스승강장		10:30	12:10		15:30	17:10
전주역(서강재활사)		10:35	12:15		15:35	17:15
럭키아파트		10:37	12:17		15:37	17:17
병원 도착		10:45	12:25		15:45	17:25

• 일요일,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운행)

셔틀버스 운행 시간표 (평화동방면)

노선	1회	2회	3회	4회
병원 출발	08:40	10:20	14:15	16:10
아중역 버스승강장	08:51	10:31	14:26	16:21
아중리 지하보도(파리바게트)	08:53	10:33	14:28	16:23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08:56	10:36	14:31	16:26
현대자동차(KT영)	09:00	10:40	14:35	16:30
경원동 기업은행	09:04	10:44	14:39	16:34
남문치과	09:06	10:46	14:41	16:36
서서학동 화신탕	09:08	10:48	14:43	16:38
평화동 지하보도(전주농협)	09:10	10:50	14:45	16:40
티파니힐	09:12	10:52	14:47	16:42
광진공작아파트 버스승강장	09:15	10:55	14:50	16:45
남양황실아파트 버스승강장	09:18	10:58	14:53	16:48
화산체육관 버스승강장	09:22	11:02	14:57	16:52
한일고 지하보도	09:25	11:05	15:00	16:55
종합경기장 버스승강장	09:27	11:07	15:02	16:57
전북은행 본점 버스승강장	09:31	11:11	15:06	17:01
전북대병원 입구 버스승강장(금암고물상)	09:34	11:14	15:09	17:04
대자인병원 응급실	09:37	11:17	15:12	17:07
전주역(서강재활사)	09:39	11:19	15:14	17:09
굴다리(천안당 호두과자)	09:42	11:22	15:17	17:12
병원 도착	09:50	11:30	15:25	17:20

• 주말·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셔틀버스 운행 시간표 (시외버스터미널방면)

노선	1회	2회	3회	4회	5회
병원 출발	08:40	10:20	12:20	14:00	16:10
전주역(웨딩의전당 건너편)	08:55	10:33	12:33	14:13	16:27
건지산 이지움 아파트	08:57	10:35	12:35	14:15	16:30
안디옥 교회 정문	09:00	10:36	12:36	14:16	16:31
전주덕진소방서 앞(119안전체험교실 앞)	09:03	10:37	12:37	14:17	16:32
삼성화재빌딩 앞	09:10	10:43	12:43	14:23	16:38
고속버스터미널(택시승강장 건너편 천번)	09:12	10:44	12:44	14:24	16:41
시외버스터미널(바른병원)	09:15	10:46	12:46	14:26	16:43
한국은행 옆(공간타일도기)	09:20	10:50	12:50	14:30	16:45
모래내(농협)	09:25	10:55	12:55	14:35	16:50
안골(항연유외과)	09:28	10:58	12:58	14:38	16:53
복일초등학교 정문(수협)	없음	11:00	13:00	14:40	없음
대자인 병원(자인약국)	09:31	11:02	13:02	14:42	16:56
전주역 건너편(서강재활사)	없음	11:03	13:03	14:43	없음
굴다리(천안당 호두과자)	09:35	11:07	13:07	14:47	16:58
병원 도착	09:45	11:20	13:20	15:00	17:10

• 주말·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셔틀버스 운행 시간표 (용진·봉동방면)

노선	1회	2회
병원출발	08:30	15:30
용진 대영아파트(버스승강장)	09:00	15:55
물소리(전북현대모터스 표지판)	09:05	16:05
둔산리(화산 한우 직판장)	09:20	16:10
LH 삼봉지구(큰 도로변 횡단보도)	09:35	16:25
봉동주공(GS25 버스승강장)	09:45	16:30
용진 마그네다리(봉동 삼거리 gs25 맞은편)	09:48	16:35
용진 상운길(용두사)	09:50	16:40
용진파출소	10:00	16:45
병원도착	10:15	17:15

• 주말·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화·수·목 운행)

마음사랑병원 | 문의 ☎ 063-240-2100





당신의 사랑으로 나눔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마음사랑후원회는 최상의 의로서비스로 '인간사랑'을 구현하기 위하여 2002년도부터 내부 직원 및 외부 후원자 약 600여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 및 보호자에게 경제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회 참여방법 ☎ 사회사업팀 063-240-2150

- 정기 후원 CMS 후원신청서 작성 후 직접 지정해 주신 계좌에서 매월 5,000원 이상이 자동이체되는 방법입니다.
- 비정기 후원 원하시는 금액을 직접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농협:351-1066-5417-13/마음사랑후원회)
- 물품 후원 의복, 식품, 도서 및 생활필수품 등 환우에게 도움이 되는 물품을 후원받고 있습니다.

2024. 1. ~ 2024. 6.

후원해주신 분(외부 288명)

(유)천보그린, (주)내외정보기술, (주)동남의료약품, (주)인스나인, 가재숙, 강경옥, 강경희, 강나루, 강민수, 강정선, 강찬오, 강화숙(장원유니콤), 강희봉, 경대용, 고훈, 고소영, 고순화, 곽동호, 곽윤복, 구도형, 권선미, 권용주, 길정호, 김경조(우아식품), 김관영, 김광현, 김내영, 김달진, 김대용, 김동철, 김동철, 김미경, 김상희, 김선영, 김성수A, 김성수B, 김성숙, 김성준, 김성태, 김소연, 김소현, 김승재, 김언걸, 김영광, 김영실, 김영화, 김용민, 김용욱, 김윤진, 김윤현, 김윤경, 김윤정, 김윤홍, 김은애A, 김은지, 김을수, 김정수, 김정연, 김정은A, 김정순, 김정화, 김정은, 김지연, 김지은, 김진경, 김진희, 김찬욱, 김창현, 김해인, 김현기, 김현민A, 김현성, 김현자B, 김현자B, 김화중, 나정현, 노경찬, 노옥임, 노옥희, 노현정, 도용약품, 류명순, 류세나, 류형선, 문기영, 문리리, 박경철, 박근영, 박근혁, 박금옥, 박기성, 박문규, 박병섭, 박병준, 박상예, 박상환, 박상규, 박세화, 박순례, 박영근, 박요창, 박윤희, 박은경, 박지순, 박지희, 박천미, 박현경, 박현숙, 박혜빈, 백조아, 백철호, 백현진, 서경태, 서소현, 서숙연, 서양석, 선옥녀, 선진태, 선호원, 성백준, 성병주, 성병희, 성운정, 송병설, 송민미, 송준준, 송지연, 송호, 신명욱, 신은숙, 신필호, 안미영, 안정의, 안대훈, 안훈규, 양은숙, 양성국, 양혜영, 오은영, 오재천, 오현화, 오혜진, 용대진, 우옥녀, 원경화, 원다혜, 유능한, 유도근, 유봉상, 유수연, 유은선, 유재명, 유재식(박상정보), 유창교, 유충열, 유현회사후원(전북종합박사), 유해광, 유현희, 유호원, 육희정, 윤광수, 윤남수, 윤연재, 윤석용, 윤성숙, 윤장수, 윤혜진, 은상봉, 이가은, 이경은, 이기성, 이남숙, 이대환, 이도규, 이도영, 이득년, 이미림, 이미숙, 이민지B, 이병관, 이상섭, 이상철, 이승연B, 이승환, 이연수, 이연숙, 이영일, 이영희, 이은희, 이의철(한주상사), 이인재, 이정숙A, 이정우, 이정은, 이준원, 이지영, 이지연, 이지연, 이창진, 이현민, 이현숙, 이현주, 이현규, 이형규, 이효숙, 이후정, 이희선, 이희진, 임경숙, 임경환, 임대영, 임두수, 임마린, 임용환, 임지영, 임종희, 임지영, 임창진, 장선호, 장연, 장영진, 장용수, 장은목, 장한보, 전석원, 전세환, 전순옥, 전은진, 전지연, 전현수, 전현수, 정경미, 정다정, 정미란, 정병우, 정순심, 정순태, 정승현, 정연주, 정영석, 정은누리, 정윤숙, 정의성(의정진권보성수신), 정충용, 정해용, 정해경, 조순우, 조순형, 조영하, 조우진, 조우호, 조영준, 차동훈(서울우유아종모급스), 찬창영, 최동원, 최상수, 최수석, 최영숙, 최영식, 최윤경, 최윤규, 최인석, 최철민, 최철민, 최화정, 김스메디칼, 허남주(하이푸드), 하혜란, 한대진, 한성종(주)태종, 한승희, 한시중, 한신혁, 한재근, 한현수, 허미란, 홍상표, 홍선화, 홍인현, 홍진성, 황다른, 황성, 황철원, 후모스트(녹원주식회사)

2024. 1. ~ 2024. 6.

후원해주신 분(내부 157명)

강경석, 강남인, 강지은, 고다연, 고요한, 고우리, 곽준, 권사라, 권옥희, 권은정, 권정은, 김강호, 김경민, 김규형, 김규혁, 김남영, 김도연, 김두리, 김민, 김병배, 김보영, 김서정, 김선주, 김성의, 김소리, 김소현, 김연아, 김용, 김은진, 김은혜, 김이정, 김민수, 김주빈, 김지태, 김해인, 김현수, 김현희, 김희정, 나설이, 노윤, 당영일, 류성현, 박가령, 박광혁, 박인실, 박상철, 박상현, 박용현, 박윤섭, 박은선, 박정현, 박지하, 박지훈, 박찬숙, 박현준, 박혜인, 배윤리, 배재호, 배준모, 서지혜, 설민우, 성정현, 손대현, 송명재, 송봉용, 송승기, 신정은, 안서현, 안형숙, 양세은, 양정효, 오남수, 오수현, 왕우영, 용태영, 유슬기, 유승근, 유현정, 유혜린, 유현희, 유희, 윤희상, 이건학, 이경로, 이금단, 이남인, 이복순, 이승연A, 이승주, 이승희, 이원희, 이유린, 이유진, 이정영, 이정민, 이정순, 이주혁, 이지연, 이지연, 이재을, 이준재, 이하정, 이현미, 이현정 A, 이현정B, 이혜숙, 이화자, 이희준, 임덕임, 임혜지, 장교은, 전대원, 전지연, 전현태, 정다은, 정민기, 정민재, 정상근, 정의성A, 정인애, 정진영, 정혜정, 조경희, 조상기, 조아라, 조윤, 조인정, 주진, 진봉섭, 진행태, 차미경, 천영자, 최강현, 최금희, 최미영, 최수아, 최수정, 최원희, 최인숙, 최재희, 최한재, 최은석, 하근혜, 하영숙, 한수연, 한영은, 한진희, 함수경, 홍선우, 홍수정, 홍윤미, 홍정숙, 홍정숙, 황승연, 황장혁, 황진자, 황태영

2024. 1. ~ 2024. 6. 자원봉사자 명단

구분	명단
헤어나눔공작소 (이 미용 봉사/39명)	강성자, 강하라, 김봉근, 김설희, 김윤자, 김은혜, 김정민, 김희영, 김현숙, 방광호, 박미영, 박범규, 배유하, 배찬은, 설동원, 송준섭, 신도빈, 신혜원, 신혜진, 염연주, 오다영, 오정아, 옥기순, 문유진, 이명로, 이미경, 이서영, 이용천, 이은경, 임미자, 임휘정, 전은숙, 전인선, 조경오, 조영희, 최준희, 하다영, 홍정현, 황재희
정서지원	기독교 예배(8명) 송진화, 양선자, 임춘희, 정윤영, 박인순, 정수영, 노혜원, 정혜영 천주교 미사(5명) 서철승, 서용자, 안은영, 김영란, 박인애
식당지원	인후1동 새마을부녀회(7명) 김정희, 김태순, 노현숙, 이순단, 장정희, 조명숙, 베르디나 봉동봉사단(7명) 라봉자, 배경옥, 손하원, 신태식, 여선희, 이영로, 이영순
지역사회봉사단	마음반창고(9명) 강민정, 권예빈, 김주연, 김주영, 배소정, 서문소희, 오수경, 이가은, 조유성 개인(2명) 김주영, 권예빈



마음사랑후원회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후원금을 투명하게 지원하고,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회복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눠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전북특별자치도마음사랑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3년 연속(2021~2023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원은 해마다 정신 영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평가를 통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평가등급



최우수 (3년 연속)

평가영역



공공성 강화



양질의 적정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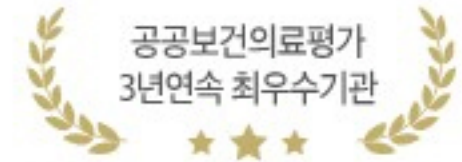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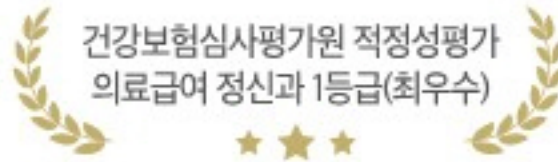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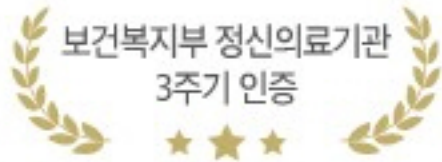
건강 안전망



미충족 서비스

전북특별자치도 정신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우수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마음사랑병원은 고객이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